

잡아함 108. 서경

날짜: 8월 4th, 2024

출처: <http://www.dhamma.kr/wp/?p=17737>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석씨의 데보다하촌에 계시었다. 그 때에 서방의 많은 비구들은 서방에 돌아가 안거하려 하여, 세존께서 계시는 곳에 나와 부처님 발에 머리를 조아리고 한 쪽에 물러앉았다. 그 때에 세존께서는 그들을 위해 설법하시어 여러 가지로 가르치고 기쁘게 하시었다. 때에 서방의 많은 비구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하고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 서방의 많은 비구들은 서방에 돌아가 안거하고자 하와 이제 하직을 아뢰나이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서방 비구들에게 말씀하시었다.

“너희들은 사리불에게 하직하였는가.”

“아직 하직하지 않았나이다.”

“사리불은 순수하게 범행을 닦는다. 너희들은 가서 하직을 아뢰어라. 그는 능히 너희들로 하여금 이치로써 이익되게 하여 긴 밤 속에서 안락하게 하리라.”

때에 모든 서방 비구들은 하직하고 물러나 떠나려 하였다.

때에 존자 사리불은 부처님에게서 멀지 않은 어떤 견고수 밑에 앉아 있었다. 모든 서방 비구들은 존자 사리불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 머리를 조아려 그 발에 예배하고 물러앉아 여쭈었다.

“우리는 서방으로 돌아가 안거하려고 일부러 와서 하직을 아립니다.”

사리불은 말하였다.

“너희들은 세존님께 하직을 아뢰었는가.”

“이미 아뢰었습니다.”

“너희들이 만일 서방으로 돌아가면 여러 다른 나라의 여러 다른 사람들은 반드시 너희들에게 ‘너희들은 세존에게서 좋은 설법을 들었으면 반드시 잘

받아 가지고 잘 관찰해 들어갔으리라고 물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은 능히 그들을 위해 자세히 설명하여 부처님을 비방하는 것이 되지 않게 할 수 있겠는가. 또 그들이 힐난하고 꾸짖을 때에 그들에게 지지 않을 수 있겠는가.”

모든 비구들은 사리불에게 아뢰었다.

“우리들은 법을 듣기 위하여 존자님께 나왔습니다. 원컨대 존자님은 우리를 가엾이 여기는 마음으로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존자 사리불은 모든 비구들에게 말하였다.

“잠부드비파 사람들은 총명하고 날카롭다. 혹은 크샤트리아, 혹은 바라문, 혹은 장자, 혹은 사문들은 반드시 너희들에게 ‘너희들의 그 스승은 어떻게 설법하며 무엇을 너희들에게 가르치느냐’고 물을 것이다. 그 때에 너희들은 이렇게 대답하라. ‘우리 스승님께서는 오직 욕탐을 항복받으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으로써 가르치신다’고. 그들은 다시 너희들에게 ‘어떤 법에 대해서 욕탐을 항복받는가.’고 물을 것이니, 다시 이렇게 대답하라. ‘스승님께서는 오직 저 물질의 <쌓임>에 대해서 탐욕을 항복받고, 느낌·생각·지어감·의식의 <쌓임>에 대해서 욕탐을 항복받으라’고 말씀하신다. 우리 스승님께서는 이렇게 설법하신다. 그들은 다시 ‘욕탐에는 어떤 재앙이 있기에 너희 스승은 물질에 대해서 욕탐을 항복받고 느낌·생각·지어감·의식의 <쌓임>에 대해서 욕탐을 항복받으라고 말하는가’고 물을 것이니 너희들은 다시 이렇게 대답하라. ‘만일 물질에 대해서 욕심을 끊지 않고 탐욕을 끊지 않으며, 사랑을 끊지 않고 생각을 끊지 않으며, 애탐을 끊지 않으면 그 물질이 혹은 변하거나 혹은 달라질 때에는 곧 근심과 슬픔·괴로움·번민이 생기리니, 느낌·생각·지어감·의식에 있어서 또한 그와 같다. 욕탐에서 이러한 재앙을 보기 때문에 물질에 대해서 욕탐을 항복받고 느낌·생각·지어감·의식에 대해서 욕탐을 항복받는 것인이라고 대답하라.

그들은 다시 ‘욕탐을 끊으면 어떤 행복과 이익이 있다고 보기에 너희 스승은 물질에 대해서 욕탐을 항복받고 느낌·생각·지어감·의식에 대해서 욕탐을 항복받으라고 말하는가’고 물을 것이니, 너희들은 다시 이렇게 대답하라. ‘만일 물질에 대해서 욕심을 끊고 탐욕을 끊으며, 생각을 끊고 사랑을 끊으며, 애탐을 끊으면 그 물질이 혹은 변하고 혹은 달라지더라도 근심과 슬픔·괴로움·번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느낌·생각·지어감·의식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같다.

여러분, 만일 착하지 않은 법의 인연을 받기 때문에 현재에서 즐겁게 살면

서 괴로워하지도 않고 걸리지도 않으며, 번민하지도 않고 애타지도 않으며,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끝난 뒤에도 좋은 곳에 태어난다면, 세존께서는 마침내 모든 착하지 않은 법은 끊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을 것이요, 또한 사람이 부처님 법 안에서 모든 범행을 닦으면 괴로움을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고 가르치시지도 않을 것이다. 모든 착하지 않은 법의 인연의 법을 받기 때문에 현재에서도 괴로이 살면서 일이 걸리고 마음이 타며,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끝난 뒤에도 나쁜 세계에 떨어진다. 그러므로 세존께서는 ‘마땅히 모든 착하지 않은 법을 끊고 부처님 법 안에서 모든 범행을 닦아서 평등하게 괴로움을 없애어 괴로움을 완전히 벗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만일 모든 착한 법의 인연을 받아 현재에서 괴롭게 살면서 일이 걸리고 마음이 타며,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끝난 뒤에도 나쁜 세계에 떨어진다면 세존께서는 마침내 ‘착한 법을 받아 가지고 부처님 법 안에서 모든 범행을 닦아 평등하게 괴로움을 없애어 완전히 벗어나라’고 말씀하시지 않을 것이다. 만일 착한 법을 받아 가지면 현재에서 즐겁게 살면서 괴로워하지 않고 걸리지도 않으며, 번민하지도 않고 애타지도 않으며,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끝난 뒤에도 좋은 곳에 태어난다. 그러므로 세존께서는 그것을 찬탄하시면서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착한 법을 받아 부처님 법 안에서 모든 범행을 닦아 평등하게 괴로움을 없애어 괴로움을 완전히 벗어나게 하시는 것 이니라’고 대답하라.”

존자 사리불이 이 법을 설명하자 여러 서방 비구들은 모든 번뇌를 일으키지 않고 마음의 해탈을 얻었다. 존자 사리불이 이 법을 설명하자 여러 비구들은 다 함께 기뻐하면서 예배하고 물러갔다.

본 문서는 dhamma.kr에서 수집한 내용입니다.